

현안과 과제

-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목 차

■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국제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6

[별첨 1] OECD 회원국의 경제 원유 의존도 9

[별첨 2] 국제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11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본부 : 주 원 연구본부장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오일 쇼크 발 스크루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개 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되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일 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월 28일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은 현실화되었다. 물론, 미국과 이란 간 단기간 내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의 국제 정세를 볼 때 이 지역이 단기간 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에 따라 원유 시장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중동 지역에 대규모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에너지 공급과 시장수요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흔히 관찰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던 4차 중동 전쟁(1973년 10월)과 이란이 석유수출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2차 오일 쇼크(1978년 12월 ~ 1979년 3월)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나타났다. 이번 전쟁을 과소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바로 호르무즈해협(Hormuz Strait)이 장기간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제는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원유 도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원유 해상 물동량의 대체 우회 수송 경로가 존재하고, 국내 원유 도입에서 미국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과거와 오일 쇼크와 같은 대규모의 경제적 충격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폭은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유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전개될 미-이란 전쟁의 방향성에 따라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수준을 가늠해 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거시 경제 변수의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① 긍정적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낮으나 수일 내 협상이 재개되어 국제 유가(2025년 두바이유가)가 연평균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미만으로 안정되는 경우이다. **② 기준 시나리오**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교전 후 협상이 재개되나 큰 진전이 없어 2026년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내외에 이르는 경로이다. **③ 비관적 시나리오**는 수개월 이상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2026년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 달하는 경우이다. **④ 오일 쇼크 시나리오**는 미-이라크전과 같이 미

국 또는 연합군의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2026년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 미-이란 전쟁의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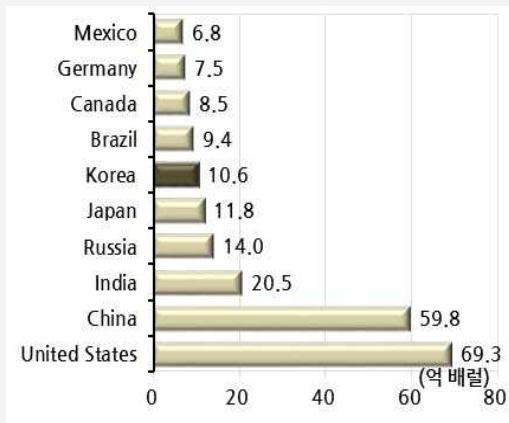
시나리오	국제 유가 (두바이유, USD/BBL)	전 제
긍정적 시나리오	70달러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의 단기 종결 단기간 내 미-이란 간 협상 타결
기준 시나리오	80달러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방간 간헐적 공습 지속 후 협상 재개 1개월 내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비관적 시나리오	100달러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습 장기화 수개월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오일 쇼크 시나리오	150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또는 연합군의 지상군 투입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 국제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그 경제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원유량(경제의 원유 의존도)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제 유가 상승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수입 급등으로 경상수지 감소가 동반되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기준 전세계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 순위가 12위인 반면, 원유소비량 규모는 7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 원유 의존도(배럴/GDP만달러)는 5.63배럴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제 유가 급등이 한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주요국 연간 원유소비량(2024년) >



자료: BP.

< 주요국 경제 원유 의존도(2024년) >



자료: BP 및 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국제 유가 변동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2026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Δ0.1%p)과 경상수지(Δ58억

달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에는 다소 높은 +0.4%p의 증가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관적 시나리오인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 경제성장률 최소 0.3%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1.1%p 상승, 경상수지 260억 달러 감소의 영향이 분석된다. 이 경우 2026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오일 쇼크 시나리오인 배럴당 150달러를 기록하게 되면, 경제성장률 최소 0.8%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2.9%p 상승, 경상수지 767억 달러 감소의 영향이 예측된다. 이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치로 잡아도 2025년(1.0%)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이다.

< 2026년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상승이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

거시 경제 변수		국제 유가 연평균 100달러 시나리오	국제 유가 연평균 150달러 시나리오
성 장	경제성장률	0.3%p ▼	0.8%p ▼
안 정	소비자물가상승률	1.1%p ▲	2.9%p ▲
대외신인도	경상수지	260억 달러 ▼	767억 달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과 대응 방안

최근 한국 경제의 경기 복원력이 취약한 가운데, 이번 충격으로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서민 경제에 있어서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이 본격화되면서 내수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리고, 이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조기 진입도 가능하여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전쟁의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고착화되면서, 해외시장 수요(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불황 국면으로의 진입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첫째, 오일 쇼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비용요인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과 실물 경기 회복을 모두 고려하는 신중한 거시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민체감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 불안 우려 품목에 대한 선제적 수입물량 확대와 유통과정의 불합리 요인 통제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 구축과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원유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산업 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1. 개요

-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되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오일 쇼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월 28일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현실화
 - 물론, 미국과 이란 간 단기간 내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 현재까지의 국제 정세를 볼 때 이 지역이 단기간 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 원유 시장의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중동 지역에 대규모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에너지 공급과 시장수요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흔히 관찰
 - 걸프전과 미-이라크전의 경우 전쟁 직전 경제지표들의 불안정성이 관찰되나, 실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예상외로 심각한 위기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던 4차 중동 전쟁(1973년 10월)과 이란이 석유수출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2차 오일 쇼크(1978년 12월 ~ 1979년 3월)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발생함

< 국제 유가(두바이유) 추이와 중동지역 주요 사건 >



자료: BP. 주: 1972~1985 Arabian Light, 1986~2024 Dubai dated.

- 이번 전쟁을 과소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이 장기간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특히, 한국 경제는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원유 도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임
 - 다만, 과거와 달리 원유 해상 물동량의 우회 수송 경로 비중이 높아졌고, 국내 원유 도입에서 미국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과거 오일 쇼크와 같은 경제 위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는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유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전개될 미-이란 전쟁의 방향성에 따라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수준을 가늠해 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거시 경제 변수의 변동을 분석하고자 함
- ① **긍정적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낮으나 수일 내 협상이 재개되어 국제 유가가 2025년 두바이유가 연평균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미만**으로 안정됨
 - ② **기준 시나리오**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교전 후 협상이 재개되나 큰 진전이 없어 2026년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내외**를 기록하는 경우임
 - ③ **비관적 시나리오**는 수개월 이상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2026년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 달하는 경우임
 - ④ **오일 쇼크 시나리오**는 미국 또는 연합국의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2026년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는 경우임

< 미-이란 전쟁의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전망 >

시나리오	국제 유가 (두바이유, USD/BBL)	전 제
긍정적 시나리오	70달러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의 단기 종결 ▪ 단기간 내 미-이란 간 협상 타결
기준 시나리오	80달러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간 간헐적 공습 지속 후 협상 재개 ▪ 1개월 내외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비관적 시나리오	100달러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습 장기화 ▪ 수개월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오일 쇼크 시나리오	150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또는 연합군의 지상군 투입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 국제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한계

○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경제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원유량(경제의 원유의존도¹⁾)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제 유가 상승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수입 급등으로 경상수지 감소가 동반되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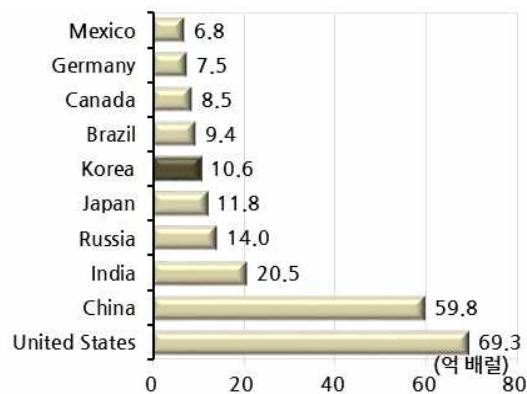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전세계에서 한국은 경제규모 순위 12위인 반면, 원유소비량 규모는 7위에 해당

- 2024년 GDP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짐
- 2024년 원유소비량²⁾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 중국, 인도, 사우디,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함

- 특히,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1위의 경제 원유의존도(GDP대비 원유소비량)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의 석유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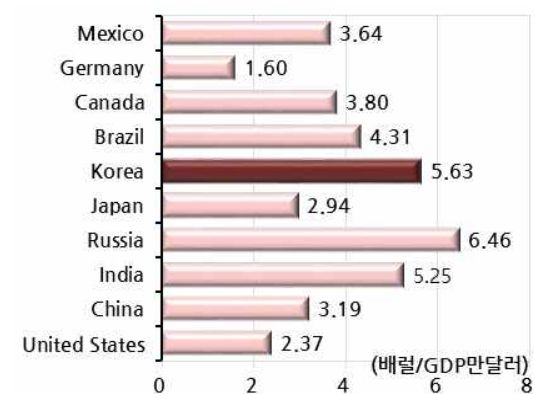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 원유의존도(배럴/GDP만달러)는 5.63배럴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주요국 연간 원유 소비량(2024년) >



자료: BP.

< 주요국 경제의 원유의존도(2024년) >



자료: BP 및 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1) 현대경제연구원(2022)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 참고: 현대경제연구원(2022), “OECD 1위의 경제 원유의존도 그 개선이 시급하다 - 국제 유가 상승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2-02.

OECD 회원국 분석 결과는 [별첨 1] OECD 회원국의 경제 원유의존도 참조.

2) 석탄과 천연가스의 파생품을 포함하며 바이오연료는 제외.

- 한국의 원유의존도 5.63배럴(GDP만달러 당)은 신흥국 중 러시아(6.46배럴)보다는 낮으나, 중국(3.19배럴), 브라질(4.31배럴), 인도(5.25배럴)보다 높음
- 또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3위의 국민 1인당 원유소비량을 기록
-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민 1인당 원유소비량(배럴/명)은 20.4배럴로 OECD 37개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함
- 한국보다 국민 1인당 원유소비량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26.2배럴), 캐나다(20.7배럴)임

(2) 국제 유가 변동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제 유가 상승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물가 상승률 증가, 경상수지 적자 요인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

- (분석 방법) 현대경제연구원(2021)³⁾의 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2026년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변화를 예측
 - 2021년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연평균 69.41달러로 2025년 수준 69.36달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임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2022년 거시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바 있음

① 기준 시나리오 분석 결과

- 2026년 국제 유가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Δ 0.1%p)과 경상수지(Δ 58억 달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에는 다소 높은 +0.4%p의 증가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② 유가 급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2026년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 경제성장률 0.3%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1.1%p 상승, 경상수지 260억 달러 감소

3) 현대경제연구원(2021), “오일 쇼크 발 슬로플레이션 우려 증폭 - 국제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1-07.

- (경제성장률) 2026년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경제성장률 0.3%p 하락**, 150달러 시 0.8%p 하락 압력이 발생함
- 국제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심리의 악화,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기업 생산 비용 증가, 수입 단가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6년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 1.1%p 증가**, 150달러 시 2.9%p 증가 압력이 발생함
- 국제 유가 상승은 원부자재 수입물가를 상승시키며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가져와 생산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짐. 다시 생산자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경상수지) 2026년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경상수지 260억 달러 감소**, 150달러 시 767억 달러 감소 압력이 발생함
- 원유수입물량이 가격에 비탄력적이라는 가정하에 국제 유가 상승은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면 원유수입액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26년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상승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

거시 경제 변수		국제 유가 연평균 100달러 시나리오	국제 유가 연평균 150달러 시나리오
성 장	경제성장률	0.3%p ▼	0.8%p ▼
안 정	소비자물가상승률	1.1%p ▲	2.9%p ▲
대외신인도	경상수지	260억 달러 ▼	767억 달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과 대응 방안

(1) 시사점

- 여전히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이번 충격으로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안착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
 - 국내 경제의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 상승은 국내 실물 경제에 불안요인을 작용할 것임
 -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제수지 악화, 물가 상승, 기업 비용 증가 등으로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서민 경제에 있어서 스크루(Screw)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를 의미하는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이 본격화되면서 내수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됨

-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조기 진입도 가능한 상황
 -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수입물가에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신호가 발생할 경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지고 오히려 빠른 시간 내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⁴⁾이 고착화되면서 해외시장 수요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우리 수출 경기가 크게 하강할 우려가 존재
 -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오일 쇼크 수준의 경제 위기 충격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 전반이 저성장-고물가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 시장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하강이 불가피하며, 현재 수출에 경제 성장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4)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2) 대응 방안

첫째, 오일 쇼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유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국제 유가의 급등은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
- 원유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관비용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전략 비축유 규모 재조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조달 계획의 재수립과 적극적인 헷지 전략이 요구됨

둘째, 비용요인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을 모두 고려하는 신중한 거시경제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실물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재침체되는지를 주시하고, 경제 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만 통화정책(금리인상) 수단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재정정책은 올해 상반기에 경제 충격이 가장 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의 조기 집행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임

셋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민체감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 불안 우려 품목에 대한 선제적 수입물량 확대와 유통과정의 불합리 요인 통제가 필요하다.

-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거시적 수단에서의 통화정책보다는 시장 지향적 물가 안정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수급 불안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 노력도 요구됨

넷째,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 구축과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 국제 유가 급등과 이어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원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국제 유가 수준 단계별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실행 능력을 점검해야 할 것임
-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전사적(全社的)인 사내 비용 절감 캠페인 실시, 재고 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제품 생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에 대해 선물 시장 등을 통해서 가격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헷지 전략을 실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담 부서의 설치, 전문 인력의 영입 및 사내 육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원유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산업 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 DX 및 GX 관련 산업,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관광업 등과 같이 골똥 없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전력, 공업용 연료 등의 에너지 투입재 절감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탄소중립 실현의 기본적 전제가 되기도 하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별첨 1] OECD 회원국의 경제 원유의존도

< 2024년 OECD 회원국의 경제 원유의존도(경제규모 대비 원유소비량) >

순위	Country	GDP (10억달러)	일 원유소비량 (1,000배럴/일)	원유의존도 (배럴/GDP만달러)
1	Korea	1,875	2,891	5.63
2	Chile	330	428	4.73
3	Greece	257	298	4.24
4	Colombia	419	449	3.91
5	Canada	2,244	2,333	3.80
6	Mexico	1,856	1,853	3.64
7	Belgium	664	577	3.17
8	Turkey	1,358	1,162	3.12
9	Japan	4,019	3,238	2.94
10	Poland	915	705	2.81
11	Hungary	223	171	2.79
12	Lithuania	85	64	2.76
13	Latvia	44	32	2.72
14	Spain	1,725	1,270	2.69
15	Portugal	309	213	2.52
16	United States	29,298	18,995	2.37
17	Netherlands	1,215	785	2.36
18	Slovenia	73	45	2.26
19	New Zealand	258	158	2.23
20	Australia	1,795	1,087	2.21
21	Slovak Republic	142	85	2.20
22	Estonia	43	26	2.20
23	Iceland	33	20	2.15
24	Czech Republic	347	200	2.10
25	Italy	2,372	1,262	1.94
26	Finland	299	157	1.92
27	Luxembourg	93	48	1.88
28	Norway	484	222	1.68
29	Germany	4,684	2,051	1.60
30	Austria	524	228	1.59
31	France	3,161	1,360	1.57
32	Sweden	604	249	1.50
33	Israel	542	207	1.39
34	Denmark	425	157	1.35
35	United Kingdom	3,645	1,325	1.33
36	Ireland	609	149	0.89
37	Switzerland	938	188	0.73

자료: 현대경제연구원(BP 및 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코스타리카는 통계의 미비로 분석에서 제외.

< 2024년 OECD 회원국의 1인당 원유소비량 >

순위	Country	연간 원유소비량 (1,000만배럴/연)	인구 (만명)	1인당 원유소비량 (배럴/명)
1	Luxembourg	1.8	67.2	26.2
2	Canada	85.2	4,114.4	20.7
3	Korea	105.5	5,175.1	20.4
4	United States	693.3	34,010.2	20.4
5	Iceland	0.7	38.4	18.6
6	Belgium	21.1	1,181.7	17.8
7	Netherlands	28.6	1,794.3	16.0
8	Norway	8.1	558.5	14.5
9	Australia	39.7	2,740.0	14.5
10	New Zealand	5.8	529.0	10.9
11	Greece	10.9	1,040.1	10.5
12	Finland	5.7	560.4	10.2
13	Ireland	5.4	542.0	10.0
14	Denmark	5.7	596.1	9.6
15	Japan	118.2	12,389.0	9.5
16	Spain	46.4	4,907.8	9.4
17	Austria	8.3	915.9	9.1
18	Germany	74.9	8,351.7	9.0
19	Sweden	9.1	1,058.8	8.6
20	Lithuania	2.3	288.8	8.1
21	Italy	46.1	5,897.1	7.8
22	Chile	15.6	2,008.6	7.8
23	Slovenia	1.6	212.4	7.8
24	Switzerland	6.9	896.2	7.7
25	Israel	7.6	998.8	7.6
26	Portugal	7.8	1,068.3	7.3
27	France	49.6	6,843.7	7.3
28	Poland	25.7	3,662.1	7.0
29	United Kingdom	48.4	6,922.6	7.0
30	Estonia	0.9	137.2	6.9
31	Czech Republic	7.3	1,093.5	6.7
32	Hungary	6.2	958.5	6.5
33	Latvia	1.2	187.2	6.3
34	Slovak Republic	3.1	542.5	5.7
35	Mexico	67.6	13,227.4	5.1
36	Turkey	42.4	8,551.9	5.0
37	Colombia	16.4	5,269.6	3.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BP 및 OECD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코스타리키는 통계의 미비로 분석에서 제외.

[별첨 2] 국제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⁵⁾

- (분석의 전제) 2026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또는 150달러를 지속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
- (분석 방법) 성장과 물가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 충격에 반응하는 분기별 경로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고정된 원유 수입물량에 대하여 원유도입단가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
 -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 유가가 성장과 물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5변수 VAR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함
 - 성장과 물가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 충격에 반응하는 분기별 경로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2026년 이후의 국제 유가 상승 효과와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수준이 누적 충격된 결과임
 - 경상수지는 분석 편의상 유가 변동에 따른 원유도입액의 변화만을 반영함
 - 원유도입액은 2025년 원유도입물량을 기준으로 가격의 변화에 물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수입액 변화를 경상수지 변화 요인으로 간주함 **HRI**

【참고】 국제 유가 변동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 경제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모형의 주요 변수를 내생변수로 설정하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사용
- 국제 유가, 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M2, 원/달러 환율 자료를 이용해 5변수 VAR 모형을 구축
- 주요 글로벌 변수 통제를 위해 외생변수로 미국 M2, 금융위기 더미 추가
- 표본기간은 2000년 4분기 ~ 2019년 4분기로, 코로나 충격을 배제하기 위해 2020년 이후는 제외하고, 분기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차는 4분기로 설정

주 원 연구본부장 (2072-6235, juwon@hri.co.kr)

5) 본 장은 현대경제연구원(2021), “오일 쇼크 발 슬로플레이션 우려 증폭 - 국제 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1-07에서 발췌한 것임.